

협동조합운동을 통한 치유와 화해의 사역*

-호저생협(현 원주생협의 전신)을 중심으로-

한 경 호(목사, 횡성영락교회, 원주생협 고문)

1. 들어가는 말

협동조합이 사회적 삶의 모순을 해결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자본주의 사회가 안고 있는 물질 중심의 비인간성이 사회 구성원의 건강한 인격 성장과 이웃과의 정의로운 인간관계를 왜곡, 파괴함으로써 개인과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는 이즈음 협동조합을 통하여 체제 모순에 의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그것의 극복을 통해 인간다운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된다.¹⁾ 체제모순이 따지고 보면 인간의 이기적 욕망에 기인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또한 인간의

* 이 글은 2015년 2월 26일 대전신학대학에서 열린 예정통합 총회 주최의 에큐메니칼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1)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12월 이명박 정부 하에서 국회에서 제정되었다. 그들의 목적은 본연의 목적인 협동사회의 구현이기 보다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장의 경제적 목적에 있었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정치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협동조합은 그 본연의 목적을 향하여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동선을 향한 본성적 의지의 표명이라고 생각한다. 협동조합이 무엇이길래 그런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인가?

협동조합은 그 추구하는 우선적인 가치가 자본주의와는 다르다. 이것은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다.²⁾ 자본주의가 자본중심, 경쟁, 효율, 개인주의,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 협동, 상호부조, 공동체, 민주, 자율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 현실 역사 속에서는 동구권의 몰락으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렇다고 공산주의적 가치가 무용지물이 된 것은 아니다. 현실 공산주의의 실패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과 방법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하기 때문이다. 여하튼 자본주의 체제의 승리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자본주의적 존재라는 말을 실감나게 한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계무역기구(WTO)를 출범시키고 전 세계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오늘 세계는 1:99의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소수에 의한 부(富)의 집중이 강화되면서 다수의 민초(民草)들은 비인간적 삶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의, 생명, 평화, 사랑 등 보편적인 가치들은 상업주의에 포장되어 그 본래의 모습이 왜곡되고 있으며, 인간적 존엄성은 자본의 힘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고 농락당하고 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민초들의 삶은 정치경제적 억압 및 차별과 소외 속에서 인격이 병들고, 가정이 파괴당하며,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는 경쟁과 효율의 시장논리 앞에 사랑이 메마른 삭막한 사막이 되어 버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은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결코 아닐 것이다. 사람이면 누구나 이런 현실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갖는다. 사랑에 기초한 상호 위로와 격려, 돌봄 속에서 인간은 마음의 평안을 찾고 심리적

2) 국제협동조합운동연맹(ICA)의 정의에 따르면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그들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필요와 염원을 충족하고자 자발적으로 결합한 사람들의 자율적인 결사체이다.”

안정을 취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이런 병든 사회에 대한 치유적 기능을 발휘하면서 건강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협동조합 운동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강원도 원주 호저면 농촌에서 협동조합운동을 통해 겪은 경험을 통해 발견한 약간의 희망적인 요소들을 언급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협동조합을 통한 마을 목회

나는 1987년 12월 초에 강원도 원주 호저면에 소재한 농촌교회인 호저교회에 부임하였다.³⁾ 1년간 상황 파악을 한 후 이듬해인 1988년 농한기(11월 이후)에 협동조합 결성을 위한 조직 작업을 시작하여 겨울을 넘기고 1989년 4월에 호저소비자협동조합⁴⁾을 창립하였다. 당시 내가 부임한 마을은 전통적인 농촌의 삶의 모습을 아직 많이 간직하고 있었다.⁵⁾ 나는 농민운동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지속적인 운동을 위해서는 재생산구조를 갖추고 있는 협동조합이 어려운 농촌의 삶을 극복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⁶⁾ 정치경제적 투쟁은 의식의 전

3) 장신대 신대원생들은 1985년 봄에 '농어촌선교연구회'라는 동아리를 결성하여 농촌선교에 대한 조직적인 준비를 해나갔다. 나도 그 회원이었으며 졸업과 동시에 농촌교회로 부임하였다.

4) 처음 명칭은 '소비자협동조합'이었다. 당시 소비자협동조합은 전국 조직이었고 강원도에는 도지부까지 있을 정도였다. 이것이 후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어 '호저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가 원주 시내의 소비자까지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면서 현재의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바뀌었다.

5) 대부분 옛날 농가 주택에 거주하면서 아궁이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하였고, 손모래기가 아직 주류였다. 생일이면 아침에 온 동네사람들을 초대하여 먹었고, 환갑이면 소리꾼을 불러 잔치하였다. 초상이 나면 다 상여를 메었고, 물은 우물물을 길어다 먹었다. 부임 2-3년 후부터 주택개량 사업이 추진되었고, 농기계들이 대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6) 나는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전, 수원에 거주할 때(1970년대 후반), 신용협동조합 창립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수원양서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조합장

환이 필요했고, 호저지역 농민들의 경우 아직 그 싸움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에는 많은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반면에 협동조합운동은 자신의 삶의 이해관계와 밀접했고, '생명'을 운동의 중심에 놓고 있었기 때문에 교인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주민들과의 선교적 접촉점으로서도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

협동조합은 결성도 중요하지만 운영이 더 중요하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농촌마을에서 교회와 주민들이 아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하는 것은 호기심과 설레임도 있었지만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도 컸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2015년 올해로 창립한지 27년째를 맞는다. 그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오늘 여기에서는 협동조합을 창립한 후 초기 10년 동안 기초를 닦고 키우면서 겪은 경험을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⁷⁾

1) 상호존중의 민주적 가치를 통한 주체성 확립

협동조합의 제일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민주적인 운영이다. '민주'(民主)는 글자 그대로 '민'(民)이 '주'(主)가 되는 가치이다. 그러나 이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훈련을 통하여 체득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이 '민주'를 실험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기구이다. 민이 주가 되는 훈련은 아직 그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심리적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촌사회는 기성세대의 권위가 매우 강한 곳으로서 아랫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을 말할 기회도

의 직책을 맡아 활동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약간의 전이해가 있었다. 협동조합 결성은 나에게 낯설지 않은 일이었다.

7) 협동조합운동을 이런 주제와 관련하여 설명하려면 그때그때 실증적 자료를 확보해야 했고, 또 그런 안목의 관찰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와서 그런 각도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자칫하면 아전인수와 무리한 연결이 있지 않을까 염려된다.

없을뿐더러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망신당할 때가 많아서 어른이 시키면 불만이 있어도 그대로 순종하는 분위기였다. 대체로 억압적인 분위기속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살아왔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의사결정구조는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

협동조합은 이런 풍토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민주정신의 배양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 방법의 하나로 핵심적인 의사결정 조직인 이사회를 매월 빠짐없이 열어서 이사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참여의지를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농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표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적(私的)인 신변잡기에 대해서는 말을 많이 해도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회의 중에 주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튀어나왔다. 논의가 전혀 엉뚱한 데로 흐르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그래도 그것에 제동을 걸지 않고 같이 동참해서 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리곤 하였다. 만일 거기에 제동을 걸면 다음 회의에 그 당사자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의는 밤 12시를 넘길 때가 많았다. 피곤해 하면서도 잘 참석하였고, 별 불만이 없었다. 회의에서 의견이 제시되고 결정되면 그대로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런 노력이 오랜 기간 계속되자 점차 주인의식이 강화되었다. 주체성이 살아난 것이다. 회의석상에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하였고,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농민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생산의 주체이면서도 객체로 대접받아온 농민들에게 이것은 매우 의미있는 경험이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특히 벼를 수매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원들의 벼를 협동조합에서 좀더 높은 가격으로 직접 사들인 것은 이때까지 정부 수매에 군소리없이 응해온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억눌러오고 자기 소리를 못 내면서 살아온 농민들에게 이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도 힘을 모아 협동하면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과 함께 심리적 치유의 효과를 발휘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심리적 치유가 이루어지는 지점 중의 하나는 자아의 존중을 통한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2) 양보의 미덕을 통한 협동적 가치의 발견

첫 번째 벼를 수매하고 난 후의 일이었다. 수매는 했지만 생산자들에게 값을 수매자금이 없었다. 목돈이 필요한 데 출자금은 얼마 안 되고, 그런 돈을 준비할 상황이 못 되었다.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탁하기로 하고 쌀을 구매하는 수원고등학교 교인들에게 1년 먹을 쌀값을 미리 내줄 수 없겠느냐고 요청하였다. 다행히 고등학교에서는 사정을 이해하고 성의껏 임해주었다. 그러나 목표에는 미달하였다. 연말까지는 수매비를 주어야 농민들은 부채도 갚고 영농준비를 하여 새해 농사와 가계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수매비는 전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수매에 응한 생산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논의를 통해 해결할 일이었다. 회의 분위기는 매우 침통하였다. 모두들 어려운 형편이라 양보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자칫하면 협동조합을 원망할 판이었다. 한참의 침묵과 한숨소리가 지난 후에 제일 많은 양을 수매벼로 내놓은 조합원이 결단을 한 듯 발언을 하였다. 자신이 나중에 받겠노라는 것이었다.⁸⁾ 이 한마디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었다. 모두들 얼굴을 펴고 양보한 조합원에게 안타까움과 함께 고마움을 표하였다. 이것으로 수매 자금 문제는 일단 해결되었다.

이 일은 원주생협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어려운 형편에서 이루어진 양보의 결단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마음들이 따뜻해지고 녹아지는 경험이었다. 양보는 모두를 살리는 귀한 협동적 가치라는 점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본인은 자신이 양보한 것에 대해 흐뭇해했고, 다른 생산자들은 고마워했다. 이해관계에 예민하고 삭막해진 마음 밭에 이것은 한줄기 시원한 청량제였다. 나아가 잃어버린 농심(農心)이 조금이나마 회복되는 싹을 보여주었다. 이런 경험은 모르긴 해도 심리적으로는 집단적 치유와 화해의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양보없는 이기적인 삶은 이웃과 불화

8) 이 사람(이희용 씨)은 후에 이사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고, 사(私)보다 공(公)을 앞세워 일하는 사람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하여 자신의 내면을 병들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집단적 경험은 원주생협의 장애에도 좋은 체험으로 길이 기억되면서 계승해 나갈 중요한 정신적 자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3) 희생을 통하여 협동조합 살리기

협동조합이 크게 성장한 후의 일이다.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던 거대연합조직인 ‘21세기생협연대’(후에 아이쿱으로 이름을 바꿈)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물류의 70%이상을 감당해온 아이쿱과 갈등이 생기면서 거래가 중단되자 원주생협과 생산자 조합원들은 큰 타격을 받았다. 당해 연도의 벼수매 문제는 일단 해결하였지만 손해가 많았다.⁹⁾ 다음해 정기총회에 이 상황이 보고되었다. 적자가 3,000만원 이상 발생하였다. 이사진도 새로 선출되었다. 이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의견이 분분하였다. 딱히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전임 이사장이 일어나 모든 조합원이 감자(減資)할 것을 제안하였다.¹⁰⁾ 조합원의 출자금을 일률적으로 감소시키자는 의견이었다. 당시 총출자금이 3억여원이었으니 10%를 감자하면 적자를 상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의견에 대하여 별 반대 의견이 없었다. 오히려 그런 방안이 있었나 하는 분위기였다. 당시 원주생협 내에는 21세기생협연대와의 갈등을 겪으면서 위기의식이 형성되어 있었다. 마음을 모아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제안은 그대로 수용되었다. 불만의 분위기가 아니라 안도의 분위기였다. 모두가 조금씩 희생하면서라도 협동조합을 살려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9) 이 사건이 터진 후 도움을 요청을 받고 나는 생산자들과 함께 21세기생협연대와 교섭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벼 수매는 당초의 계약을 지키기로 하였으며, 물류의 상대를 수도권사업연합(현, 두레생협연합회)으로 바꾸게 되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면 큰 위기에 봉착했을 것이다.

10) 이 의견을 낸 사람(박영학 씨)은 이웃 마을 성결교회의 집사로서 매우 신실한 교인이었다. 호저생협 이사장, 원주생협으로 바뀌었을 때 초대 이사장을 지냈다.

이 사건은 원주생협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하였다. 조금 희생하면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조합원의 마음을 결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랬다. 21세기생협연대는 거대 도매물류를 하는 곳이었다. 말하자면 ‘갑’이다. 시장에서는 유통을 장악한 사람이 ‘갑’이다. 농민은 ‘을’이다. ‘거대한 갑’이 ‘연약한 을’을 향해 횡포를 부려도 어쩔 수 없이 당해야하는 것이 현실이다. 원주생협도 그런 처지에 처하여 큰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작은 희생과 협동으로 극복하고 치유하면서 이겨나갔다. 이 사건 역시 늘 당하면서 살아 온 농민들에게 작은 희생을 통한 극복의 경험을 집단적으로 갖게 함으로써 스스로를 어루만지고 격려해주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농민의식 및 비판적 정치의식의 향상

농촌사회에서는 한 가지 여론만 형성된다. 언로(言路)는 단순하여 관변 정보들이 대부분이다.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록 만든다. 농민들이 보는 신문이 다 그렇고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오락이나 예능 그리고 드라마 정도를 볼 뿐이지 시사물이나 교양물들은 거의 보지 않고 산다. 자생적인 단체라고는 친목계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는 거의 다 관변단체들이다. 새롭고 다양한 정보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있다면 교회가 유일하는데 그것은 전적으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나에 달려 있다.¹¹⁾

그런데 생협이 생기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점차 관변정보가 아닌 새로운 정보들이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주는 정보들, 비판적인 안목을 갖게 해주는 정보들이 들어왔다. 농민들의 인식이 서서히 달라져갔다. 정치의식도 많이 고양되었다. 농민들의 어려움이 정부의 잘못된 농업정책과 재벌중심의 경제운영에서 비롯되고 있

11) 호저면의 고산지역에는 오래 전에 천주교가 들어와 있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의식은 다른 지역과 많이 달랐다. 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농민들의 이익은 스스로 뭉쳐서 소리를 낼 때에 성취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농협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었다. 이런 인식은 집단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점차 확산되었다.

이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첫째는 농협조합장 직선제가 시행되면서 호저면 조합장 선거에서 원주생협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자리만 장기간 차지하고 있는 무능한 현 조합장 대신 다른 후보를 당선시키려한 일이다. 이 일은 불과 15표의 차이로(현재의 내 기억으로는) 실패했지만 값진 열매를 안겨주었다.¹²⁾ 뭉치면 갈아치울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이때까지 어쩔 수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는 아니었다. 둘째,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될 때 원주시 산하의 9개면 중에서 호저면에서 김대중 후보 찬성표가 가장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이 현상을 단순히 야권지지표가 많이 나왔다는 현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농민들이 스스로 만든 자생적인 조직에서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그동안 비주체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보다 주체적인 농민으로 변화되어간 중요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의식의 함양을 통한 주체성의 회복과 권리의 행사, 이것 역시 억압받고 있던 심리적 위축을 털어내는 치유의 한 행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3. 협동조합을 통한 교회목회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게 되자 교회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교인들 간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동시에 교회와 지역주민들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교인 간의 관계, 교회와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동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12) 이때 나는 소식지를 발간하면서 여론의 변화를 꾀했다. 그러나 농촌의 사정은 한 가구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집안의 어른이어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투표를 통해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란 상황에서 그 정도 표차로 진 것은 사실상 이긴 것이나 다름 없었다.

1) 교인 간 관계의 변화

협동조합은 교인간의 관계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새로운 일 관계가 형성되면 그 일을 매개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다. 농산 물직거래를 위한 활동, 구판장의 운영, 기름공장의 가동, 미장원의 운영 등 교인들이 경제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되자, 일을 중심으로 서로를 다시 보며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나갔다. 사적(私的)인 생활상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 남에 대한 시비와 비판, 별것 아닌 이유로 원망의 마음을 갖는 일 등은 점차 사라졌다. 물론,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차원의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하지만 낮은 단계의 말거리들은 대부분 사라졌다. 좀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지 않으면 앞에 매일 주어지는 일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수년이 지나자 교인간의 대화분위기도 바뀌고 소재도 많이 달라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매일 생협에 상주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의 공간이 확보되었고, 오다가다 들르게 되어 대화의 시간이 늘어났다. 이전에는 주로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에서 만나던 관계가 일상적으로, 또한 생협 일로 만나는 관계로 변화되었다.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좀더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밀도있는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면 빨리 해소하는 능력도 향상되었다. 이제 뒤에 숨어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자주 만나는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뒤에서 한 말들이 곧바로 상대방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면전에서 말하게 되고 혹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빨리 해명과 해소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교인 상호관계의 큰 변화였다.

또한 호저교회로서는 흩어져 있던 마음들이 조금씩 결속되는 효과를 낳았다. 전임자 때에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과 관련된 분쟁이 있었고, 그러 인해 큰 상처를 받았으며,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교인들의 마음이 모래알 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점차 사라지고 결속이 이루어졌다. 나아가 교회의 지역사회에서의 책임의식도 점차 형성되어갔다.

2) 도·농교회간의 따뜻한 만남과 나눔

호저생협은 창립 초기부터 수원의 고등교회와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도농생명공동체운동을 시작하였다. 고등교회는 호저생협의 조합원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성실하고 착실하게 구매해주는 소비자였다. 고등교회 교인들은 신앙과 선교에 대한 인식이 매우 높았다. 농촌교회 및 농민들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생산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농산물직거래운동이 진행되었다. 구매비가 없어서 고충을 이야기했을 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여 1년 쌀 값을 미리 내주는 관용을 베풀었다. 나아가서는 청소년연합수련회, 여전도회 연합모임 등으로 교인들 간의 교류로도 이루어졌다. 나눔과 섬김의 자세가 돋보였다.

고등교회는 장년 출석교인 이 약 100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교회였다. 50여명 되는 호저교회와 형제교회로서 딱 어울렸다. 몇 년이 지나면서 해마다 연초에는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계획과 바램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도시 작은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의 따뜻한 사랑의 에너지가 작은 농촌교회 교인들과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농’(農)이 지니는 온유의 영성(“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서로의 마음을 녹였다.

이런 교류의 활동 중에서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추수감사연합예배이다. 직거래운동을 시작한 지 몇 년 후 고등교회가 추수감사절 주일에 버스를 대절하여 전 교인이 호저에 와서 양 교회가 함께 호저교회 마당에서 연합예배를 드린 것이다. 예배 후에는 공동식사를 하고 촛극, 노래 등 공동의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하루 종일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이것은 농촌교회의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신앙 안에서 도농교회 간에 이렇게 기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였다. 놀라운 것은 이 예배 때에 드린 추수감사헌금 전액을 호저교회에 주고 갔다는 점이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절기헌금이어서 액수도 제법 되기 때문이다. 참으로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체험이었다. 이것은 목회자인 나와 호저교회 교인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무언가

막혔던 마음들이 트이고, 굳었던 심정들이 부드럽게 녹아지는 마음이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3) 지역사회를 향한 당당함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에게는 점차 교회가 시작한 생협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기여하고 있다는 공로의식이 생겼다. 자부심과 자긍심이 서서히 자라났다. 사실, 호저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다. 교회 내에 분란도 종종 있었고, 교인 및 교회와 관련된 좋지 못한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웬지 떼떳치 못한, 위축된 분위기가 있었다.¹³⁾ 그런데 생협활동이 전개되면서 이런 분위기가 일신되었다. 일종의 도덕적 당당함이 교인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게 되었고 이것은 겉으로 표출되었다.

언젠가 교회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풍물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 지나가던 주민이 풍물소리를 듣고 교회로 들어와 교회에서 왜 풍물을 치느냐고 소리를 질렀다. 교회를 앞잡아보는 비교인 주민의 행태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 집사가 그 주민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교회에 와서 왈가왈부 하느냐, 교회가 이 지역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는 거 모르느냐?”고. 이런 대꾸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새벽 종소리 몇 번 치는지 숫자를 가지고 시비 걸고, 술 취해 교회에 들어와 예배를 방해하는 등 교회를 무시하는 행태들이 종종 있었으나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고, 아무 말도 못했었다. 여 집사의 대꾸는 제 3자가 볼 때는 싸움을 걸거나, 상대에게 대드는 말로 들리겠지만 상황을 아는 나의 경우는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던 마음을 치유하는 자기 치유의 소리로 들렸다. 인정받지 못한다는 심리적 콤플렉스가 도덕적 권위의 회복을 통해 점차 해소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3) 부임 초기 주민들이 목회자인 나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는 바로 교회를 향한 것이었다. 무시하는 듯한 언사, “당신도 별 수 없어” 라는 듯한 태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비난들은 주민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고 있었다.

4. 나가는 말

지금까지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초기 단계에 기초를 놓으면서 겪었던 경험을 치유와 화해라는 입장에서 설명해 보았다. 그것이 정말 설명대로 인 지 아니면 나의 일방적인 생각인지 검증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심리적 치유와 화해의 사건이 큰 변곡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상의 소소한 사건을 통해서도 겪는 것이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치유와 화해는 물론 그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발생하는 시기와 지점이 다를 것이지만 일반적인 원리로 보면 인간 창조태의 원형이 여러 가지 상황 즉, 억압, 상처, 무시, 차별 등으로 본래의 모습이 마음 깊은 곳에 눌러 있다가 그런 요인들이 제거되는 개인적, 집단적 경험을 통해 회복되는 현상이 아닐까 생각하며, 큰 원리로 보면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 공감과 인정 속에서 그리고 집단적 실천을 통하여 발현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나의 설명은 한계와 함께 개연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앞으로 협동조합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그때그때 사건을 겪을 때마다, 아니면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에 실무자나 조합원들에 대한 조사 작업들을 병행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축적해 가면, 보다 실증적으로 변화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農